

자기효능감과 취업전략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의료정보과 전문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ategy on career decision level  
-Focusing on freshmen of medical information department-

박복남(의료정보과)

Park, Boc Nam(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 - efficacy and job strategy on career decision level of freshman students in colleg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3 freshman students in the medical information department from March 2, 2016 to March 10, 201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Result:** The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atisfaction and learning confidence. **Conclusion:** Programs that improve career decision level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student enrollment and employment rates.

Key wards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취업전략정도(job strategy),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입학자원이 2010학년도 60만 명이었으나, 2020년 47만 명, 2025년 39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sup>(1)</sup>,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대학 간의 경쟁력심화로 이어져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근래 국내의 산업 환경과 직업시장의 특징은 자구직자에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 충실했던 전문대학은 입학경쟁력의 약화와 입학자원의 기초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2-3년의 교육연한으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4년제 대학의 실무중심학과를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대학은 존폐의 위협 속에 있다<sup>(3)</sup>.

2020년까지 전문대학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졸업자 취업률 향상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체 수요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취업경쟁력이 있는 전공계열로 간호보건계열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sup>(3)</sup>. 전국적으로 대학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50-60%수준인데 이는 의, 치, 약학, 보건계열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과별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sup>(4)</sup>.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계열 분야의 대학진학 과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기대감으로 의료정보과에 진학한 신입생의 경우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부족과 적성 불일치 등을 호소하며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현상을 나타낸다.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전공과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수준과 장래의 진로

에 대한 확고한 정도로,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으로 졸업 후 자신이 종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결정을 의미한다<sup>(6)</sup>(2차인용). 대학신입생에게 진로결정은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인생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은 휴학, 자퇴, 졸업유예 등으로 이어지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부족과 목표 없는 취업과 같은 심각한 방향 상실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진로분야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7,8)</sup>.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념수준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진로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전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직업세계의 다양화에 적극대응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 개인의 목표달성,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취업전략이 필요하다<sup>(9)</sup>.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모든 과정에 치밀하고 정확한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sup>(10,11)</sup>, 취업전략정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 자기효능감과 외적요인 취업전략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학과 적응, 재학을 및 전공분야 취업을 향상을 위한 신입생 관리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취업전략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취업전략, 진로결정수준 정도를 파악한다.
2.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1.3. 용어의 정의

### · 자기효능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Shere 등(1982)<sup>(13)</sup>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를 홍혜영(1995)<sup>(14)</sup>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 취업전략

대학생의 취업전략은 취업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취업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sup>(15)</sup>. 본 연구에서는 한선옥(2002)<sup>(16)</sup>이 개발한 취업전략 도구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상태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Osipow 등(1976)<sup>(17)</sup>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DS)를 고향자(1992)<sup>(18)</sup>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1개 대학 의료정보과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의료정보과 대학신입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전문대학의 의료정보과 1학년 신입생 87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87부였으며, 이중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4부를 제외한 총 8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 등(1982)<sup>(13)</sup>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S)를 홍혜영(1995)<sup>(14)</sup>이 번역하여 요인분석한 도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 6문항으로 총 23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취업전략

취업전략에 관한 측정도구는 기존 관련 한선옥(2004)<sup>(16)</sup>이 개발한 도구로, '취업전략'에 관한 하위요인으로는 능력배양 4문항, 구직활동 4문항, 구직계획 2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에서는 Osipow 등(1976)<sup>(17)</sup>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DS)를 고향자(1992)<sup>(18)</sup>가 번안한 도구로 전공 및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 2문항과 진로미결정 수준 16문항 총 1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진로미결정 수준은 역점수로 계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향자(1992)<sup>(18)</sup>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89$  이었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진로결정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진로결정수준과 일반적 특성의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논의

### 3.1. 일반적 특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67명(80.7%), 연령은 19세 54명(65.1%)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자택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79명(95.2%)로 조사되었다. 가정형편은 보토수준이 57명(68.7%)로 나타났으며 취업희망분야는 병원원무 34명(41.0%), 병원행정 26명(31.3%), 병원코디네이터 5명(6.0%), 병원진산 4명(4.8%), 편입 등과 같은 기타분야 12명(14.5%)로 조사되었으며, 전공분야 취업희망정도가 3.96점( $\pm.89$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취업희망분야는 대부분의 학생이 전공직무에 맞는 병원원무·행정 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전공분야 만족과 학습능력을 조사한 결과 학과만족(3.53 $\pm$ .67)이 학교만족(3.16 $\pm$ .6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전공분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2.95점( $\pm$ .7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자신감도 높지 않은 점수로 조사되었다(3.10 $\pm$ .74). 이는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며 병원행정·안내와 같은 직무를 완성하여 전공분야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전공학습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이 다소 낮아 학과전공학습의 집중적인 지도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변수	분류	N(%)	M(SD)
성별	남자	16(19.3)	
	여자	67(80.7)	
연령	18세	17(20.5)	19.01(.87)
	19세	54(65.1)	
	20세 이상	12(14.5)	

거주지	자택	79(95.2)	
	자취	4(4.8)	
가정형편	어려움	18(21.7)	
	보통	57(68.7)	
	넉넉함	8(9.6)	
취업분야	병원원무	34(41.0)	
	병원행정	26(31.3)	
	병원코디네이터	5(6.0)	
	병원전산실	4(4.8)	
	기타	12(14.5)	
전공취업희망			3.96(.89)
학교만족			3.16(.61)
학과만족도			3.53(.67)
학습능력			2.95(.70)
학습자신감			3.10(.74)

### 3.2. 자기효능감, 취업전략 정도, 진로결정수준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및 진로결정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3.37(±.40)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부영역인 일반적 효능감은 3.36점(±.45), 사회적 자기효능감 3.38(±.57)로 조사되었다. 취업전략정도는 2.299점(±.58)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직계획이 2.03점(±.63)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구직활동이 나타났다(2.14±.90). 진로결정수준은 3.28점(±.55), 하부영역 중 진로확신수준이 3.07(±.74)로 낮게 조사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전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주영주 등(2010)<sup>(19)</sup>의 연구결과 3.15점과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명희와 강민정(2015)<sup>(5)</sup>의 연구결과 3.15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전문대학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지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취업전략정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sup>(9,20)</sup>.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학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며, 취업에 관한 행동은 취업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구하는 정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대학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진로결정수준은 이학계열이 공학, 인문사회계열 등 기타 학과계열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평균점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sup>(21,22,23)</sup>. 보건의학계열이 전문직종으로 사회진출의 기회가 높은 것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은 진로에 관한 미결정상태로 진로탐색과정에 관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알지 못하며 직업정보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한다<sup>(23)</sup>. 사회현상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신입생에 대한 진로상담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degree of employment strategy and career decision level

### 3.3. 자기효능감, 취업전략정도,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교만족( $r=.223, p<.05$ ),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효능감	1.71	4.47	3.36	.45
사회적효능감	1.17	4.67	3.39	.57
자기효능감 합	1.91	4.39	3.37	.40
능력배양	1.00	5.00	2.63	.63
구직계획	1.00	3.25	2.03	.63
구직활동	1.00	5.00	2.14	.90
취업전략 합	1.00	3.90	2.2888	.58
진로확신	1.50	5.00	3.07	.74
진로미결정	2.00	4.69	3.31	.57
진로결정수준 합	2.06	4.67	3.28	.55

학습능력( $r=.260, p<.05$ ), 학습자신감( $r=.462, p<.01$ ), 취업전략정도( $r=.320, p<.01$ )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r=.371,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전략 정도는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결정수준은 학과만족( $r=.408, p<.01$ ), 학습자신감( $r=.361, p<.01$ ),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sup>(5,6,23)</sup>,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과 결정력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취업전략정도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그 관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Table 3> Cor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ategy and career decision level

	학교만족	학과만족	진공취업 희망	학습능력	학습자신감	자기효능감	취업전략 정도	진로결정 수준
자기효능감	.223*	.160	-.030	.260*	.462**	1		
취업전략정도	.001	.009	-.028	.150	.093	.320**	1	
진로결정수준	.080	.408**	.177	.179	.361**	.371**	.218	1

\* $p<.05$ , \*\* $p<.01$

### 3.4. 진로결정수준의 예측요인

학과만족도( $\beta=.35, p=.001$ )와 자기효능감( $\beta=.30, p=.004$ )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5.7%로 나타났다( $F=13.14, p=.000$ )<Table 4>.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관리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to career decision level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	------	---	----	---------	---	---

	(Constant)	.82	.51			
진로결정수준	학과만족도	.30	.09	.35	3.50	.001
	자기효능감	.42	.14	.30	2.95	.004
$R^2=.257, \text{Adj } R^2=.237, F=13.14, p=.000$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개 전문대학 의료정보과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취업전략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의료정보과 1학년 신입생 83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은 3.37(±.40), 취업전략정도는 2.299점(±.58), 진로결정수준은 3.28점(±.55)으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r=.371, p<.01$ ). 취업전략정도와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r=.408, p<.01$ ).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학과만족도( $r=.408, p<.01$ ), 학습자신감( $r=.361,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학과만족도( $\beta=.35, p=.001$ )와 자기효능감( $\beta=.30, p=.004$ )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5.7%로 나타났다( $F=13.14, p=.000$ ) <표 4>.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정보과 신입생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진로결정 수준향상에 유도할 것이며 이는 재학율과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조사를 위해 보다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 보건계열 신입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영향요인변수를 적용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 본 연구의 대상이 경기지역 1개 전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표집과 관련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타 지역과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검증 해볼 필요성이 있다.

#### 5. 참고 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2009, 주요교육통계, Retrieve.
- (2) 주현재, 김현우, 2016, 전문대학에서의 NCS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교유규-로그래 개발-S 보 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 38권, 제 3호, pp 327~358.
- (3) 이용균, 이기성, 2010, 한국 전문대학의 미래 예측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 29권, 제2호, pp. 69~90.
- (4) 지태정, 2016, 의료보건계 대학생들의 취업인식 실태에 따른 취업전략, 가야대학논문집, 제15권, pp. 141~155.
- (5) 강명희, 강민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방법연구, 제 27권, 제 4호, pp. 489~510.
- (6)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

- 구, 제 21권, 제 3호, pp.217~230.
- (7) 박소희, 2011, 진로태도성숙도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주도성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 14권, 제 3호, pp. 307~331.
  - (8) 이기학, 김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12권, 제1호, pp. 127~136.
  - (9) 김경화, 2013,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취업전략 간의 관계 및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 20권, 제 10호, pp. 369-390.
  - (10) 김은영, 200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 및 취업전략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선옥, 2011,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1182.
  - (13) Shere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Vol 51, pp. 663~671.
  - (14)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선(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한선옥(2004). 대졸미취업자의 불합리한 신념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Osipow, S. H., Carney, G. C., Barak, A., 1976, A scale education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No 2, pp. 233~243.
  - (18)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19) 주영주, 정애경, 임연옥, 김가연, 2010, 전문대 학생의 강좌에 대한 자기효능감, 유용·용이성, 몰입 및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 15권, 제 3권, pp. 217~238.
  - (20) 김재원, 201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 6권, 제2호.
  - (21) 민무숙, 1997,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취업전략 분석, pp. 59~88.
  - (22)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 6권, 제 1호, pp. 185-196.
  - (23)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0권, 제 4호, pp. 1191~1210.